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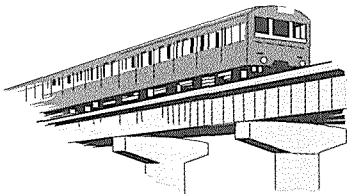


# 피서처에서 본 영화



김찬욱

〈한전홍보실 전문위원, 수필가〉



**최** 근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조성되면서부터 그 동안 색깔 논리에 눌려지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보면서 세상사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시기에 하필 빨치산 이야기를 하게되니 나 또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일까 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자랑거리보다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인 것을 부끄럽다 하여 어찌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있으랴. 그 단서는 한 영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름 휴가철이면 나는 종종 영화관 피서를 즐기는 편이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그날도 피서 차 영화관에 갔다가 '南部軍'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예술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라하는 이 영화는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이었다. 6·25동란이 끝나갈 무렵 지리산을 중심으로 출몰하던 빨치산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기자 출신 李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것이다. 안성기씨의 중후한 연기도 좋았지만 그보다 전편을 수놓은 한국의 자연, 그 중에서도 지리산의 웅장한 계곡과 雪景이 무비카메라를 통하여 더욱 절묘하게 미화되고 있었다.

이곳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전쟁의 참혹함과 그 전쟁에 이끌려간 젊은이들의 사상적 갈등, 그리고 그 시대상황에서 표류하는 지식인들의 나약함과 무산계급 출신들의 저돌적 용맹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극한상황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화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 남을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때 좌와 우로 갈라선 이념적 대결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저녁 나는 학생시절에 겪었던 제주도 4·3 사건이 자꾸만 회상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중3에 재학 중이었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학생회간부들 중에는 全學聯과 손을 잡은 우익 학생도 있었고 좌익의 民愛靑세포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토론이 벌어지면 매양 극렬한 쪽 학생이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치안이 얼마나 혼란했는지 나의 집이 있는 納岫은 읍 소재지에서 산 쪽으로 불과 4km쯤 떨어진 중산간 부락인데도 낮에는 대한민국이 다스리고 밤에는 한라산을 거점으로 하는 빨치산의 지배를 받을 정도였다.

그 무렵 도 전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회에서는 겁도 없이 제헌국회의원의 조카로서 우익성향이 강한 생물교사의 학생구타사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온건한 쪽에서는 구타행위는 나쁘나 동기는 기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건의를 통해 앞으로는 구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자고 나왔고, 극렬파 학생들은 폭력교사는 축출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맹휴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표결 결과는 동맹휴학이 가결되었고 학생회 간부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학생의 등교를 막는 휴학에 돌입함으로써 학교측과 정면 대결하게 되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고 학생회 간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 칠혹 같은 어둠이 깔린 겨울밤 나는 에월의 피난처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구인 되었다. 그리고 한달 남짓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심한 고문과 회유와 협박이 반복되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엄군 장교가 유치장을 찾아왔다.

“내일 너희들의 총살행이 집행된다, 그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과와 너희가 살아온 과거를 조용히 반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

이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우리들은 견잡을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슬픔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자 나는 손톱으로 유치장의 시멘트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손톱에서는 피가 흘렀으나 마음은 어느새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때 그 벽에 새겨진 나의 낙서의 의미가 무엇이었던지는 지금 기억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은 영화 ‘남부군’에서 본 한 빨치산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몽당연필로 무엇인가를 수첩에 기록해 남겨두려는 그런 본능적 행위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떠난 다음 누군가는 나의 낙서를 읽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위안이 있었기에 나는 다음날 아침 일행과 함께 포승에 묶인 채 흔들리지 않고 형장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

행길 양쪽에는 우리의 행렬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아마 그 군중 속에는 나의 혈육과, 내가 사랑했던 소녀와, 나의 친구와, 나의 스승도 끼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던 탓으로, 아니 그보다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悔恨과 굴욕감과 누

군가를 향한 알 수 없는 저항감으로 하여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던 탓으로 나를 향한 그 누구의 손짓도 보이지 않았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몇 건의 총살행이 눈앞에서 집행되고 마침내 우리의 차례가 왔다. 모두들 창백히 떨고있는데 부대장인 듯 한 장교가 우리 앞에 다가와 엄격하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 학생인가, 그리고 죽음을 앞둔 너희들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라”

그러자 나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큰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싶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나를 아껴주시던 모든 분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군인이 다시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예”

우리들의 대답은 의외로 힘찼다.

“됐다, 너희들은 여기서 석방한다,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유익한 일꾼이 되기 바란다, 해산”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방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어느덧 60개살을 훨씬 넘어선 나이가 되었다. 남부군으로 시작한 잡문이 젊은 시절의 나를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겁나는 말이지만 그때 나는 친구들로부터 경찰에 잡혀가느니보다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자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때 만약 그 권유를 따랐더라면 나는 영락없이 빨치산의 일원으로서 남부군의 신세가 되었을 것이 뻔하지 않는가.

영화 ‘남부군’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두 사건은 하나같이 편가름에서 비롯된 슬픈 이야기들이고 그 편가름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주동자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간 자나 뒤따른 자나 다 같은 죄인이요, 그 수난도 또한 因果應報인 것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있으랴. 이제 진정 바램이 있다면 나부터라도 편가르고 싸우는 일은 그만 두고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는 화합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다. 조그만 이 땅덩이에서 우리끼리도 합치지 못한다면 어찌 北과의 합침을 바랄 수 있겠는가. ㉞